

8 인터뷰-양 캠퍼스 총학생회

“관심과 참여, 총학을 움직이는 원동력”

정다연 기자 ekdusgood@khu.ac.kr
최예령 기자 herry2020@khu.ac.kr

1월부터 임기를 수행하는 양 캠퍼스 총학생회장단을 만나 당선 소감과 앞으로의 각오를 들어봤다. 2023학년도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총학) 선거에서 ‘SKETCH’ 선거운동본부 이재백(관광학 2020) 총학생회장과 채희선(행정학 2020) 부총학생회장이 선출됐다. 이들은 지난 2022년부터 총학에 몸담으며 각각 중앙집행위원장과 권리복지처장으로 활동했다.

Q. 전반적인 총학 운영 계획과 가장 먼저 실행할 공약은?

55대 총학은 54대 총학과 운영 방식이 비슷할 것이다. 가장 먼저 실행하고 싶은 공약은 스마트 캠퍼스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양 절대평가다. 교양 과목 절대평가는 학우분들의 성적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사례를 조사하고 TF를 구성하거나 내부적으로 대학본부 등과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Q.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공약은?

총장 관련 공약이다. 오는 2024년에 총장 선출을 앞두고 있기에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후보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간담회 등을 통해 공개 질의하는 자리도 만들 예정이다. 선출 방식에 대해서도 아직 논의된 바가 없다고 들었다. 그 부분을 파악하는 게 우선인 것 같다. 학생들의 의견도 수렴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할 예정이다.

Q. 지난 소통간담회에서 단과대학별로 제기된 문제가 많았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이나 단과대학과 구상 중인 연합 사업 계획은?

오는 2~3월 중으로 신속하게 소통 간담회를 진행하고자 한다. 소통 간담회는 본부 차원에서 해결해 줘야 하는 문제를 논의하는 게 주요 목적이다. 그러나 단과대학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본부로 올라오는 경우도 많다. 핵심 내용을 우선 논의하고 그 외는 ‘단과대학 별로 행정실과 논의의 장을 마련해달라’는 식으로 요청할 것이다.

학기 초에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소통간담회를 학기 초에 진행하면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된 우선순위를 구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2~3월에 간담회를 진행했는데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된다면



① 서울캠퍼스 이재백 총학생회장, 채희선 부총학생회장 (사진=이지수 기자) ② 국제캠퍼스 문정식 총학생회장, 권예성 부총학생회장 (사진=박서현 기자)

7~8월쯤에 다시 개최해서 2학기에 는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Q. 후마니타스칼리지 절대평가 도입이나 P/NP 공약은 불공정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를 설득할 방안은?

성적은 학교 내부에서 경쟁하는 것만 보면 안 되고, 좀 더 넓은 시각에서 취업 시장이라든지, 졸업 후 사회에 진출했을 때의 상황도 봐야 한다. 교양 절대평가 같은 경우는 고려대학교와 같은 최상위 대학에서 이미 실행하고 있고, 학점 비율이 극도로 인플레이 되지 않음을 확인했다. 그렇기에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 공정의 문제가 우선시되기보다는

사회 진출 후 장점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를 중심으로 구성원들을 설득할 예정이다. 우리 학교 학생이 사회에 나갔을 때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게 최종 목표이다.

Q. 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관심이 있어야 학생회도 굴러간다. 앞으로 1년 동안 최대한 잘 끌고 가고, ‘열심히’가 아니라 ‘잘’하는 총학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할 텐데 그런 부분에 관심 가져주시고, 총학이 어떤 행보를 보이는지 바라봐 주시는 게 중요한 것 같다. 감시일 수도 있고 응원일 수도 있는 다양한 시각들이 총학을 더 잘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아닌가 생각한다.

2023학년도 국제캠퍼스 총학 선거에서 ‘희로’ 선거운동본부 문정식(중국어학 2018) 총학생회장과 권예성(건축공학 2018) 부총학생회장이 선출됐다. 이들은 2022학년도 총학에서 각각 대외팀장과 집행본부장으로 활동했다.

Q. 임기 시작 이후 전반적인 총학 운영 계획과 가장 먼저 실행할 공약은?

공약 이행에 있어서 시기적절한 이행과 발 빠른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순서를 정하고 하나하나 풀어나갈 예정이다. 대학 당국과의 소통의 자리를 계속해서 만들 것이다. 이를 통해 총학의 생각을

공유할 예정이며 ‘경희로운 경희’로 나아가기 위해 관련 논의를 지속적으로 하고자 한다. 우선적으로 총학 집행본부를 모집할 계획이다. 가장 먼저 실행할 공약은 교내 버스 정류장 질서 문화 확립이다. 선거 준비 전부터 버스 정류장 질서 문제를 인지했었고, 이는 총학과 중앙운영위원회(중운위)에서도 논의됐던 안건이다. 학우들께 감사 인사를 드릴 겸 가장 먼저 실행할 것이다.

Q. 총학의 직위를 수행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임기를 시작할 때의 본질을 잊지 않는 것이다. 우리학교의 브랜드 가치, 학교와 학생 사이의 다리가 되고자 하는 마음, 학생 주체 활동, 세밀성 네 가지를 기조로 했고 이에 집중하며 역할에 임하고 싶다.

Q. 단과대학 연합 사업 계획은?

단과대학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대형 행사를 염두에 두고 있다. 각 단과대 그리고 우리학교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할 수 있는 장치라고 생각한다. 중운위가 시작되기 이전 임기를 준비하는 건국준비위원회 형태로 계획을 진행할 예정이다. 연합 사업이 더 나은 경희로 나아갈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Q. 이원화 문제에 대한 입장은?

국제캠퍼스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야 학생들이 애교심을 가질 수 있고 이원화 인식에 대해서도 잡음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다. 최근 이슈인 융합전공에 대해서는 관련 협의체를 마련해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다.

Q. 학생들과 학교에 전하고 싶은 말은?

당선이 돼 매우 행복하고 기쁜 마음이다. 단선이라는 이례적인 상황과 3년 만의 대면 선거 체제에서 많은 학우분들의 관심과 참여가 있었기에 이 자리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해 너무나도 감사드린다. 이전 총학의 임기 연장도 있었고 대면 학기의 정착기가 도래함으로써 기대를 많이 가지고 계실 것이다. 그 기대가 학교에 대한 자긍심과 애교심으로 당연하게 이어질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다. 학교에는 총학과 대학본부 간 소통이 잘 이루어지길 바라고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린다.